



강신주

나의 조각난 세계를
메워주는 존재, 타자(他者)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나의 조각난 세계를 메워주는 존재, 타자(他者)

타자(他者)란 무엇인가? 현대 철학은 타자의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자에 대해 탐구했던 버클리와 들뢰즈의 철학을 통해 타자에 대해 알아보자.

학습 목표

- 현대 철학의 뜨거운 화두, 타자(他者)란 무엇인가?
- 경험론자이자 교회 주교였던 버클리의 타자론
- 들뢰즈가 얘기한 타자의 성격과 영향력

강사 소개

- 강신주

강신주

대중철학자,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

저서 : 『철학적 시 읽기의 괴로움』 『철학vs철학』

『제자백가의 귀환 1, 2』 외

강의 보기



- 제목 : 나의 조각난 세계를 메워주는 존재, 타자
- 강사 : 강신주 (대중철학자)
- 구성 : 16분

지식 노트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철학자이자 성공회 주교. 그의 철학은 지각하는 것만이 실체이며, 지각하지 못하는 것의 실체는 없다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Esse est percipi)”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는 극단적인 경험론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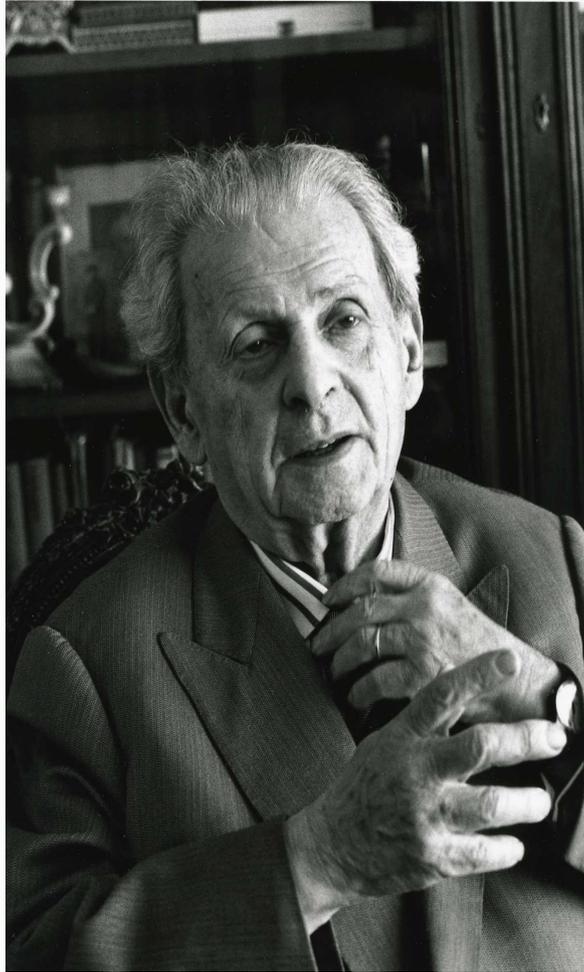
지식 노트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

프랑스의 철학자.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송 등의 연구를 통해서 '생성의 철학'을 전개하였다. 경험론, 관념론이라는 사고의 기초 형태를 비판적으로 해명했으며, 철학, 문학, 영화, 예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작들을 썼다. 주요 저서 『차이와 반복』, 『천 개의 고원』 등

지식 노트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

프랑스의 유대계 철학자. 서구철학의 전통적인 존재론을 비판하고 타자(他者)에 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유 세계를 펼쳤다. 주요 저서 『시간과 타자』(1947), 『윤리와 무한』(1982) 등

강의 노트

타자(他者)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정의

→ 나와 삶의 규칙이 다른 것

타자는 '마주침'을 전제로 한다.

'마주침'은 물리적인 마주침이 아닌 존재가 동요하는 만남

우리는 '마주침'을 통해 나와 다른 존재인 타자를 발견하게 된다.

타자성은 외부의 대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기도 한다.

타자(他者)

- 나와 삶의 규칙이 다른 것
-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것

20세기 철학의 근본적인 화두는 대개 ‘타자’의 문제로 환원된다.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철학자이자 성공회 주교. 그의 철학은 지각하는 것만이 실체이며, 지각하지 못하는 것의 실체는 없다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Esse est percipi)”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는 극단적인 경험론에 속한다.

경험론자이자 주교였던 버클리의 주요 화두는 경험론의 담론 안에서 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경험론의 기본 원칙 : 지각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

경험론의 기본 원칙에 입각했을 때, 현재 지각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는 존재로 신을 정당화함으로써 세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절대적 타자를 등장시켰다.

버클리는 타자의 성질인 ‘낯섦’을 철학적 담론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것 외에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것들은 망신·습관에 불과하다.’

타자는 내가 절대 볼 수 없는 나의 얼굴을 보는 존재

들뢰즈에게 타자는 ‘나’의 조각난 세계를 보충해주는 존재로 출발한다.

→내 시선과 타자의 시선이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가 된다.

타자는 나의 의식이 필연적으로 “나는 ∞였다” 속에서, 즉 더 이상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의 과거 속에서 흔들리게 만든다. 타자가 나타나기 전에 예컨대 어떤 안정된 세계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과 구분하지 못했다. 타자는 하나의 위협적인 세계의 가능

성을 표현하면서 등장하며, 이 세계는 타자 없이는 펼쳐지지 못한다. 나? 나는 나의 과거 대상들이며, 나의 자아는 바로 타자가 나타나게 만든 한 과거의 세계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이다. 타자가 가능 세계라면 나는 과거의 한 세계이다.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Logique du sens, 1969)

우리는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타자를 마주하는 순간 나는 ‘과거의 존재’가 되고 타자는 나의 ‘가능 세계’(미래)가 된다.

레비나스: 타자는 나의 미래

들뢰즈: 타자는 나의 가능 세계

낭독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자는 나와 삶의 규칙이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타자와 마주쳤을 때 나는 낯섬을 느낄 수밖에 없다. (...) 정치적인 입장, 미적인 취향, 성적인 자극 등, 나는 타자와의 사이에서

너무도 큰 차이를 직감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나는 과거 자신이 살았던 안정된 세계를 자각하며, 동시에 타자를 “하나의 위협적인 세계의 가능성”으로 직감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변한다면, 그것은 내가 타자와의 마주침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새로운 배치(agencement)를 실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내가 영위해 온 삶의 규칙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다. 들뢰즈가 “타자가 가능 세계라면 나는 과거의 한 세계이다”라고 결론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타자가 없다면 나는 과거의 한 시점에 매몰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할 때에만 타자의 낯섦과 가능 세계를 받아들이고 변할 수 있다

학습 요약

- 타자는 나와 삶의 규칙이 다른 것, 내 생각을 벗어나는 존재로 '마주침'의 동요로부터 발견된다.
- 버클리 는 경험론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절대적 타자를 주장하여, 신의 존재를 정당화했다.
- 들뢰즈는 타자를 '나'의 '조각난 세계'를 보충해주는 존재로서, 미래적 성격을 지닌 '가능 세계'로 보았다.
- 우리는 사랑할 때에만 타자와의 차이를 감내하고 타자를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문 퀴즈

1. 다음 중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송 등의 연구를 통해서 ‘생성의 철학’을 전개하고, 경험론·관념론이라는 서구의 이분법적 사유 형태를 비판적으로 해명했으며, 철학·문학·영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 저작 『차이와 반복』, 『천 개의 고원』을 쓴 프랑스 철학자는 누구인가?

- (1)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 (2) 조지 버클리
- (3) 질 들뢰즈
- (4) 에마뉘엘 레비나스

인문 퀴즈

2. 다음은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질 들뢰즈의 ‘타자(他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들뢰즈가 이해하는 ‘타자’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은?

‘타자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안정된 세계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과 구분하지 못했다. 타자는 하나의 위협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표현하면서 등장하며, 이 세계는 타자 없이는 펼쳐지지 못한다. 나는 나의 과거 대상들이며, 나의 자아는 바로 타자가 나타나게 만든 한 과거의 세계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이다. 타자가 가능 세계라면 나는 과거의 한 세계이다.’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Logique du sens, 1969)

- (1) ‘나’의 세계는 완전하다.
- (2) ‘타자’는 부족한 나의 세계를 보완한다.
- (3)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
- (4) ‘나’의 인식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인문 퀴즈

3. 다음은 근대 경험론의 핵심적인 인물인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의 말이다.

“지각하는 것만이 실체이며, 지각하지 못하는 것의 실체는 없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Esse est percipi)”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것 외에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것들은
맹신·습관에 불과하다.”

다음 중 조지 버클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 (1) 성훈 : 옆방에 동현이가 있는지,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
- (2) 혜진 : 착시현상을 보니 우리의 눈은 때론 보이는 것을 왜곡 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
- (3) 은진 : 까마귀는 검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순 없지.
- (4) 보람 : TV에서 아이돌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아이돌이 아닌 스크린 위의 영상을 보는 것이지.

정답

1. (3) 2.(2) 3.(2)

1.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철학, 문학, 심리학,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보이며 연구했고, 그의 저서로는 『의미의 논리』, 『차이와 반복』, 『안티 오이디푸스』, 『카프카』, 『푸코』 등이 있다.
3. 보기는 경험론자 버클리의 말이다. 직접 지각하고 경험한 것이 실재하는 것으로 여겼던 경험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2) 헤진이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퍼블릭 도메인

지식 노트

- http://en.wikipedia.org/wiki/File:John_Smibert_-_Bishop_George_Berkeley_-_Google_Art_Project.jpg
- 퍼블릭 도메인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Emmanuel_Levinas.jpg

나의 조각난 세계를 메워주는 존재, 타자(他者)

강사: 강신주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ArtnStudy.com